검찰개혁 합의…중수청 설치 '산넘어 산'

여야, 28일 사개특위 안건 처리
중수청 관할·청장 임명 첨예 대립
지휘부 총사퇴 검찰 반발도 숙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안(검수완박)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중대범죄수사청' 논의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박 의장의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국민의힘 5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비교섭단체 1명은 의석수에 따라 정의당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개특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금주 초부터 실무 협의를 통해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의 과제는 '한국형 FBI(미 연방 수사국)'인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이다. 중수청은 6개월 이내 사개특위에서 입법이 이뤄지고, 1년 내 출범하는 스케줄로 추진된다.

그러나 순조로운 출범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핵심 조직이다보니, 중수청 관할 및 중수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탓이다.

수사업무 교통정리부터 난제다. 중수청 설립과 동시에 공수처를 폐지할지 말지,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있는 반부패수사팀을 중수청으로 이전할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지 여부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과 중수청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사법통제를 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수청 법안의 합의가 늦어진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유야무야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 직접수사권의 폐지 시기가 '중수청 출범'과 연계됐기 때문이다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입법에 합의를 이루더라도,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중수청 설립 법안은 '사개특위→법사위→본회의'를 거치게 되며,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이 172석의 의석수를 활용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민주당안'으로 단독 처리할 경우, 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또 검찰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 7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입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최고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수사업무 외 택시 출입 금지 24일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정문에 '수사업무 외의 택시 차량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지난 22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검찰개혁법안 반대' 대국민 호소문

광주지검이 국회의 검찰개혁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냈다. 여야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국민에게 검찰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게 호소문의 골자다.

검찰이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호소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일동 명의의 호소문에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검찰제도 변화가 한 달도 채 안 되는 단시일에 (여야의) 타협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지검은 "형사사법 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토대"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의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형사사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박병석국회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를 제외한 4대 범죄 삭제,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골자로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비례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모
민주당 전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의원 비례대표는 1번 여성당직자, 2·6번 노인·장애인·소상공인·농어민, 3·5번 여성, 4번 청년에 배당한다.

권리당원 중 성평등교육을 포함해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공모기간은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며,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사본을 전남도당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비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300만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200만원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이용섭 '위기에 강하고 안전한 광주' 공약 발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위기에 강하고 안전한 광주'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의 제1가치는 안전이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사고를 겪으면서 국가나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면서 "위기에 강하고 안전한 광주를 완성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공약으로 ▲광주안전보장회의(GSC) 설치 ▲시민건설 안전감독관 제도 시행 ▲인공지능(AI)형 재난안전체계 구축 ▲시민 재난안전 교육 실시 등을 약속했다. 그는 "안전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안전한 도시 광주'를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강동완 시교육감 예비후보 "야구장·복합시설 건립 추진"

강동완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스포츠·예능 클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야구장 및 복합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실력교육의 핵심가치가 생명존중, 건강교육, 인성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 대전환 방안으로 스포츠·예능클럽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는 최근 광주소프트볼야구협회와 간담회 자리에서도 "광주에서 초·중·고, 전국대회나 동계 전지훈련에 사용할 야구경기를 위한 친환경 야구장의 건립의 필요하다는 협회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서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 "수의 경쟁입찰제 조속 도입"

서채원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예비후보는 24일 "수의 경쟁입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서 예비후보는 "단체장의 일방적인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가 진행돼 비리 원인이 되고 업체들의 불만도 많았다"면서 "군수에 당선되면 단체장의 수의계약 권한을 내려놓고 강진군 내 모든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입찰제도 확립으로 신뢰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윤봉근·이영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최치현 지지 선언

최치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4일 "함께 경선에 나섰던 윤봉근·이영순 예비후보가 최치현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봉근·이영순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지만, 경선 후보에서 '컷오프' 되면서 최치현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최 후보의 국정 경험에 윤봉근·이영순의 교육과 행정, 자치 경륜을 더하겠다"면서 "강고한 정책연대로 광산구민께 더 좋은 내일을 제시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예비후보는 "화합과 통합의 '화통'한 정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대통합의 광산구정으로 광산구민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김경자 함평군수 예비후보 "함평을 한봉의 메카로"

김경자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는 24일 "함평을 한봉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꿀벌 실종과 관련해 한봉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한봉농가의 조속한 경영 안정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한 피해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면서 "피해 꿀벌 농가가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말했다.

그러면서 "함평을 한봉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양봉 기자재 지원, 벌꿀 포장재, 꿀 생산 장비, 친환경 벌통, 말벌퇴치기 등 지원하겠다" 면서 "꿀벌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기술 개발에도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공고 2022-28호

「호남한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 사업 공고(안)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한국학 인문강좌 및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호남한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 4. 15.

한국학호남진흥원장

▶ 개 요
- 사 업 명 : 호남한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6월 ~ 2022년 10월
- 사업내용 : 호남한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으로 호남한국학 활성화 및 위상 제고
- 선정규모/총사업비 : 18개 단체 / 140백만원 이내
  ※ 강좌 10개팀 팀당 10백만원, 학술대회 8개팀 팀당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형태 : 실비 지원

▶ 사업추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업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사업 수행	사업비 지원	성과 보고 및 정산 (완료 후 1개월 이내)

▶ 공모 유형

구 분	공모내용
공모 주제	• (제1주제) 호남한국학 • (제2주제) 자유 주제 • 제1주제, 제2주제 융복합
선정 규모	10~18개 단체
지원 규모	위탁사업비 총 140백만원 *단체별 강좌 10백만원, 학술대회 5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활동 기간	2022년 6월 ~ 10월
활동 내용	• 호남한국학 관련 강좌 개최(8회 이상) • 호남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 사진, 영수증 등 제반 증빙서류 제출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제외 대상	• 공모사업 참여가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친교단체·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전문성과 사료적 근거가 없고 이해당사자 간(저작권)의 분쟁 소지가 있는 사업 • 공모 사업 선정 발표에 따른 참여와 수혜 대상이 특정 종교인과 혈연 숭모 사업 • 최근 3년 간(2019 ~ 2021) 국공립 및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부정 집행 및 정산

신청 제외 대상	※ 공통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시립도서관, (재)광주문화재단, 전라남도, 전남도립도서관,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동일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제출한 성과물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역사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 공모 및 접수 기간
- 공모 및 접수 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9:00 ~ 5월 2일(월) 18:00**
- 서류심사 개최(사업계획 평가) : 추후 공지
- 선정 결과 발표 : 추후 공지

▶ 공모 신청 자격
- 광주·전남 소재 대학(교)
- 공고일 전일 기준 주소지가 광주·전남인 호남한국학 분야 연구기관·법인단체·민간단체

▶ 공모 내용
- 호남한국학 관련 강좌 10개 단체 / 학술대회 8개 단체

▶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 수 처) (우: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3층)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획연구부
- 온라인 접수 (메일 보내실 곳) suyakjai@hiks.or.kr

※ 온라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2-603-9616, 엄찬영)

직접 방문 시 유의사항
- 서류봉투 앞면에 「호남한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사업」를 기재
- 제출 서류를 동봉하여 근무시간 내 방문 제출(근무시간 09:00~18:00)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류봉투 앞면에 「호남한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사업」를 기재
- 우편 접수는 소인이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찍힌 것까지 유효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 메일 제목 및 첨부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접수해야 함
  : 호남한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사업 - 단체 또는 개인명
- 제출 서류를 한 개의 'HWP파일'이나 'PDF파일'로 연결
- 사진 파일은 별도 압축파일(zip) 형태로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서류만 인정

▶ 제출 서류 (※한국학호남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 [붙임 2]
- 단체소개서 및 사업추진 실적, 증빙(최근 2년 이내)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평가 및 대상자 선정
- '자격 요건'과 '사업계획서'를 평가함
- 사업계획서에 기술한 내용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출 서류 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종 선정 결정 시 적격 개인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 공모 계획보다 적게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공통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이름(단체, 개인)을 기입하지 말 것
-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계획이 아니어야 하며, 논거 출처 · 참고문헌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함
- 제출된 서류의 위조·변조나 신청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신청서는 접수 기간 내 제출된 건에 한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출 서류 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프로그램 운영 중 모든 사고 및 민원에 대해 개인 · 단체에서 책임을 짐